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1~2017.3.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唐宋 선원, 미혹한 중생 부처 만드는 작불 학교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윤창화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5천원





당송 선원 생활문화, 철학 등 8년간 탐구
최초의 선원…백장회해가 창건한 백장사
납자 시스템은 법문, 독참, 청익, 좌선 등
깨달음 격론 벌어지는 치열한 전장 역할

'선의 황금시대'인 중국 당송시대 선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납자들을 지도했을까? 우리나라 선원처럼 화두를 준 후 무작정 앉아 있으라고만 했을까? 아니면 별도의 지도가 있었을까?민족사 윤창화 대표〈사진〉는 최근 자신이 펴낸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서 "당송시대 선원총림의 납자 시스템은 법문, 독참, 청익, 좌선 등 4가지 였다"고 설명한다. 이어 윤 대표는 "이 4가지 시스템은 가람 설계도에도 그대로 적용돼 가장 중요한 당우는 법당(설법당), 방장, 승당(선당)으로 이 세 당우가 수행 및 오도 시스템의 핵심 건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윤 대표가 펴낸 책은 선종의 여러 청규와 선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중세(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각종 제도, 가람 구성, 생활철학, 그리고 그 사상적 바탕 등 선종의 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을 탐구한 저술이다.

윤 대표는 책속에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철학과 각종 제도, 문화, 생활상, 가람 구조, 그리고 납자 교육 및 지도 시스템의 핵심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범부를 조사로 만드는 데(成佛作祖)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즉 단순한 종교 교단이 아니고 미혹한 인간을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침묵이 감도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방장이 피로에 시달릴 정도로 깨달음의 격론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장이었다고 말한다.

역사상 최초의 선종사원은 당(唐) 중기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가 창건한 대웅산(백장산) 백장사(백장총림)이다. 그 이전에는 독자적인 선종사원이 없었다. 선승들은 율종사원에서 당우 한 채를 빌려 함께 기거(寄居)하는 이른바 더부살이 형식, 또는 독살이 형식이었다. '선종의 건설자'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선승'인 백장회해는 선종의 이상 실현을 위해 비로소 율종사찰로부터 독립해 처음으로 독자적 사원을 가졌는데, 그는 백장총림을 세우면서 몇 가지 중요한 대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불전(대웅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설법당)만 세운다. 둘째, 생활경제 즉 총림의 식생활 문제는 보청(노동)으로 해결한다. 셋째는 주지(방장)는 불조로부터 친히 법을 부촉 받은 법왕이므로 그를 높이기 위해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등이다. 이 세 가지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의심할 만큼 놀랄만한 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저자는 우선 선종사원서 종교적 기능을 주로 하는 불전을 건축하지 않고, 불상도 모시지 않던 당나라 때 선종사원에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당대 조사선의 선승들은 반야지혜가 투철했다. 그들은 사상적 · 정신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한 끝에 '부처'란 목석이나 금은으로 만든 불상이 아니고 반야지혜가 곧 부처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반야지혜가 작동 · 가동되지 않는 부처는 나무토막이나 돌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리의 단편소설 〈등신불〉은 단하천연 선사가 불상을 쪼개서 불을 땠다는 '단하소불(丹霞燒佛)'을 소설화한 것인데, 이 선화가 시사하는 바는 목석으로 만든 불상은 지혜 작용이 없는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불상 속에는 부처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금강경에는 제5분 여리실견분에는 대승의 여래가 수보리에게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상(身相)서 여래를 볼 수 있는가?"라고 말하자, 수보리는 "세존이시여, 신상에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저자는 이것이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신불이 활발발하게 작용한 법당을 세운 사상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정신은 불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비록 시대적 요청에 의해 선종사원에 불전이 세워지고는 있었으나 그 규모가 왜소해 법당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 신자들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불전에 가서 기도할 뿐, 현재 우리나라처럼 부전스님이 불전에 가서 불공을 올려 준다거나 기도 · 염불해 주지는 않았다. 불전은 있어도 아직 불공의식 등 염불문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북송시대 불전의 위상은 낮았고, 그 위치도 한쪽 모퉁이에 있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칠성각이나 독성각 정도였다. 선당(禪堂)의 납자들은 그쪽으로 일체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고 저자는 책 속에서 밝힌다.

저자가 이 주제를 탐구한 출발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토(京都)에 있는 선종사원을 답사하고 나서부터다. 교토의 선종사원인 묘신지(妙心寺), 겐닌지(建仁寺), 료안지(龍眼寺), 텐류지(天龍寺), 쇼코쿠지(相國寺), 도후쿠지(東福寺) 등과 후쿠이에 있는 에이헤이지(永平寺) 등 선종사원은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사원의 규모와 정갈함, 방장(方丈, 주지실) 당우와 선종 특유의 석정(石庭) 정원 등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책을 쓰게 한 발분망식의 계기였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8년 동안 매우 행복했다. 이 주제(선종사원, 선원총림)와 대면하면 어느새 번뇌망상 등 일체를 잊고 탐구삼매에 들었다"고 술회한다. 저자에 따르면 선종사원 즉 선원총림은 사후 왕생극락이나 현세 이익을 기원하는 종교적 · 기복적 장소가 아니고, 선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문적 수도장이었다. 선원총림은 중생을 전인적 인격자인 부처로 만들고, 불교적 바탕이 전혀 없는 범부를 위대한 조사로 만드는 성불작조(成佛作祖)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선불교는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규, 생활방식 등 모든 제도를 수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납자 지도 시스템과 철학을 완성시켜 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모습과 철학을 다양한 문헌을 통해 고증하며 세밀하고 집요하게 써내려 간다. 선종이 율종으로부터 독립해 그 나름의 독자적 체계를 이룩하고, 규모와 사상적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던 이유를 우직하게 탐구한다. 그가 이 연구로부터 이끈 핵심은 당송시대 선승들은 공(空)을 실현키 위해 모든 현상과 번뇌망상은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다고 파악했고, 정신적으로는 관념의 집착을 타파한 것이다. 그 상징적인 말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인 살불살조(殺佛殺祖)'이다.

실제로 선종서는 불(佛)이나 성(聖)에 대한 권위를 배격했고, 불과 불상을 그다지 신성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 납자들이 대웅전에 가서 조석예불을 하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권위의 장막(부처와 조사)을 걷어 버렸을 때 비로소 독탈무의(獨脫無依)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위로가 필요한 순간 붓다를 만나다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

이필원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경전 속 이야기를 재해석 했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언어를 사용했다. 세 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여든 노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인생이 묻는다,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가 찾으려 하는 그 답을 책 속에 등장하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대신하는 것은 어떨까. 이 책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삶에 꼭 필요한 조언들이다.

암탉이 여러 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암탉은 알 위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온기를 나눠주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 알들이 모두 병아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꾸짖은 것이다. 어느 날 붓다가 길 위에 떨어져 있는 종잇조각과 새끼를 가리키며 무엇에 사용했던 물건 같으냐고 물으셨다. 종이에선 향냄새가 났고, 새끼에선 생선 비린내가 났다. 향을 싼 종이와 생선을 묶은 새끼를 통해 현명한 이를 가까이 하면 향내가 나지만, 그렇지 않은 이를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난다는 '관계'에 대한 조언을 말했다.

한 당나귀가 소 떼 뒤를 따라가면서 '나는 소다, 나는 소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나귀는 진짜 소가 될 수 없다. 고양이가 호랑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진짜 소는 '나는 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소로 살 뿐이다. 이처럼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된다. 붓다는 비유를 통해 '단지 생각할 뿐'인 삶을 살지 말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라는 교훈을 준다. 목동이 소를 치며 걸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동의 손에는 소를 치는 막대기가 들려있다. 멀리서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이라도, 소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기와 목동은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 이는 죽음이 생명을 재촉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늙음과 죽음은 결코 피해가지 않고 우리의 뒤를 따르니 삶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이 책은 사람 마음가짐부터 사회 전반의 이야기까지 고루 담으며 세상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세상을 바로 보는 방법, 사람을 바로 보는 방법을 전하며 불교철학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자를 국 속에 담그는 것으로 국 맛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이 짠지 싱거운지 알기 위해선 반드시 그것을 직접 떠 마셔야 한다. 경전 속 비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에 맞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전 속 비유를 아무리 쉽게 해석했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붓다가 전하는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여러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과 현시대에 맞춘 메시지로 모두가 고민하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는 저자 특유의 비유법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법을 제시 한다. 이필원 교수는 경전 속 비유를 통해 삶의 다양한 얼굴을 조명하며,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의 답을 제시한다.

경전속 이야기 이해 쉽게 재해석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의 답 제시

이 책은 경전 속 붓다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편한 민낯을 꾸짖고 개인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정확히 집어준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소란스럽다. 과도한 경쟁, 불안한 경제, 부끄러운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화로 가득 찬 시대, 짜증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비유는 어린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유는 부패한 정치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이다. 비유는 '나'를 가장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비유는 사람을 가려 사귈 수 있게 하고, 비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초기경전부터 대승에 이르기까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붓다의 100가지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바로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들에 답을 찾고자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이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위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중관철학, 귀류논증학파를 중심으로
게셰 탠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유불도 통섭을 통한 인도불교의 중국적 변용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를 중심으로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작법절차를 중심으로
해시/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일심(전여)의 신해성'과 '일심지한(본각)의 결정성'을 중심으로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